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3. 10. 14

충남도 아시아 교류전략 개선방안

김양중(공동연구 이민정)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kyj0509@cd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도 아시아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외교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요 약

CONTENTS

< 요 약 >

1. 현황 및 문제점
2. 충남의 아시아외교 정책방향
3. 충남의 아시아외교 전략
4. 전략수립을 위한 로드맵

- 충남은 FTA, 세계경제위기, 글로벌화 등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효율적 아시아외교를 위해 지역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국가를 재선정해야 함
- 교류국가선정과 더불어 해당국가의 교류지차제도 충남 입장에서 다시 고민해야 함
- 이후에는 지자체별 중점 교류분야를 선정해야 하며, 중점 교류분야의 선정은 교류국가 및 지자체의 환경 및 특성을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마지막으로는 교류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류프로그램을 발굴·개선하여야 할 것임
- 충남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논의해야 함
- 먼저 아시아지역으로 수출하는 충남중소수출기업의 니즈(needs)를 올바르게 분석해야 함
- 특히 한·ASEAN FTA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FTA 활용컨설팅을 강화하고, 아시아무역환경에 대한 정보수준을 높여야 할 것임
- 그러기 위해서는 교류협력 및 중소기업의 수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시아지역 무역사무소의 추가개소여부도 결정해야 할 것임

충남도 아시아 교류전략 개선방안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kyj0509@cdi.re.kr)

이민정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연구원)



요 약

- 충남은 FTA, 세계경제위기, 글로벌화 등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효율적 아시아외교를 위해 지역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국가를 재선정해야함
- 교류국가선정과 더불어 해당국가의 교류지차제도 충남 입장에서 다시 고민해야 할 것임
- 이후에는 지자체별 중점 교류분야를 선정해야 하며, 중점교류분야의 선정은 교류국가 및 지자체의 환경 및 특성을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마지막으로는 교류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류프로그램을 발굴·개선하여야 할 것임
 - － 해외 및 타지자체의 우수교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충남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함
- 충남의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임
- 먼저 아시아지역으로 수출하는 충남중소수출기업의 니즈(needs)를 올바르게 분석해야 함

-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은 미주나 유럽의 특성과는 다른 양상을 띠 수 있으며, 무역환경, 비관세장벽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올바르게 분석하여 지원해야 함
- 특히 한·ASEAN FTA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FTA 활용컨설팅을 강화하고, 아시아무역환경에 대한 정보수준을 높여야 할 것임
- 그러기 위해서는 교류협력 및 중소기업의 수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역사무소의 추가개소여부도 결정해야 할 것임

현황 및 문제점 ◀

1) 충청남도 아시아 교류현황 및 문제점

가. 교류국가 및 지자체

<표 1> 충청남도 교류지역

국가	지역
중 국	허베이성 산둥성 옌벤주 지린성 장쑤성 쓰촨성 상하이시 랴오닝성 윈난성
일 본	구마모토현 나라현 시즈오카현
러시아	아무르주 레닌그라드주
캄보디아	시엠립주
베트남	롱안성
호 주	남호주주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독 일	바이에른주
미 국	캘리포니아주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브 라 질	상파울루주
베네수엘라	불리바르주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자료: 충청남도청 내부자료

- 충남도는 1983년 구마모토현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13개국과 교류 중에 있음
- 이중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4개국에 불과
 - 아시아 4개국, 유럽 4국, 미주 4개국, 대양주 1개국
- ▶ 충남에 있어 중국과 일본은 거대 경제권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지만, 한-ASEAN FTA로 동남아시아 시장이 부각되고 있어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도 활성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충남도는 현재 24개(자매결연 6개, 우호협력 18개) 지자체와 교류 중에 있음
- 이중 아시아 4개국의 교류 지자체는 중국의 9개성과 일본 3개 현을 포함 하여 총 14개로 상당히 많은 편
- ▶ 충남도 아시아 교류국가의 확대와 더불어 충남에게 보다 큰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교류지자체의 재편도 반드시 필요

나. 교류횟수 및 교류형태

- 충남도의 아시아 교류국가는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4개국에 불과 하지만 교류 횟수는 상당히 많은 편
 - 최근 3년간 교류실적을 살펴보면 도전체 교류 횟수(282회)의 89.0%가 아시아지역과의 교류였으며, 79.8%가 중국(131회), 일본(94회)과의 교류였음
- ▶ 중국, 일본은 충남도와 교류 횟수가 많은 만큼 교류 지자체를 선정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류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임

<표 2> 국가별 교류현황

(단위: %)

교류 국가	횟수	비율
중 국	131	46.5
일 본	94	33.3
러시아	15	5.3
캄보디아	11	3.9
베트남	15	5.3
호 주	0	0.0
폴란드	4	1.4
독 일	0	0.0
미 국	0	0.0
아르헨티나	2	0.7
브 라 질	10	3.5
베네수엘라	0	0.0
우크라이나	0	0.0
합 계	282	100.0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 또한 아시아 국가의 교류현황은 주요인사 방문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국을 제외하고는 경제통상 분야의 교류가 전무

<표 3> 교류형태별 교류현황

(단위: %)

교류 형태	중국	일본	캄보디아	베트남
주요인사 방문	34.4	40.4	54.5	46.7
행정시책	11.5	4.3	0.0	0.0
경제통상	21.4	0.0	0.0	13.3
농수산, 환경	10.7	7.4	0.0	0.0
문화·체육·관광	9.2	33.0	27.3	0.0
공무원 연수	10.7	4.3	18.2	26.7
청소년·의료·소방 기타	2.3	10.6	0.0	13.3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 ▶ 교류형태가 주요인사 방문에 편중되어 있어 경제통상, 문화·관광 등 충남도 지역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분야의 교류활성화가 필요
- ▶ 충남도는 ①아시아 교류국가 확대, ②교류 지자체 재편, ③ 경제통상, 문화·관광의 교류영역 확대가 필요

2) 충남도 아시아 수출현황 및 문제점

- 충남의 중소수출입기업은 48.7%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으며, 미국 (38.7%), 일본(30.3%), 베트남(21.0)% 순으로 나타났음
- 아시아지역 수출은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순으로 수출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충남 중소수출기업의 주요수출지역

(단위: %)

수출 국가	수출 비중
중국	48.7
홍콩	10.3
미국	38.7
일본	30.3
대만	15.0
베트남	21.0
슬로바키아	3.0
멕시코	6.3
싱가포르	9.0
필리핀	7.7

자료: 2013년 충남 중소수출기업 설문조사 결과

- ▶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아시아 지역 주요수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으로 특히 중국, 대만, 홍콩의 중화권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권을 커버할 수 있는 충남무역사무소는 상해 1개소에 불과하며, 중국, 일본을 제외한 동남아시아를 커버할 수 있는 무역사무소는 1개도 없는 실정
- ▶ 동남아시아의 시장정보를 파악하고, 직·간접적으로 충남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해외사무소의 확대도 고려해야할 시점임

<현황으로 살펴본 충남도가 고민해야 할 주요이슈>

① 동남아시아 등 교류국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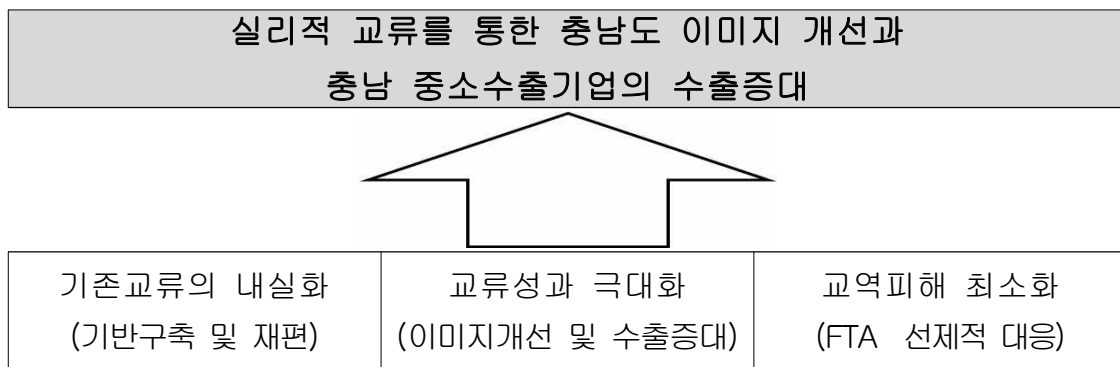
② 기존교류 지자체 재편

③ 경제통상, 문화·관광의 교류영역 확대

④ 아시아 수출지원 강화 및 동남아시아 지역 해외사무소 개설

충남의 아시아외교 정책방향 ◀

<표 5> 충남의 아시아외교 정책방향



1) 기존 교류의 내실화

- 아시아지역의 실효성 있는 외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관련예산의 확보와 아시아지역 전문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무엇보다 아시아지역 교류국가의 확대가 필요
 - 충남은 2013년 현재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4개국과 교류하고 있으나, 넓은 아시아지역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함
- 아울러 교류지자체의 재편도 고민해야 함
 - 급변하는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 교류지자체만 고집할 이유는 없음
 - 충남도에 직·간접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자체를 찾고, 서로에게 실익이 되는 교류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

2) 교류성과 극대화

- 전시성·일회성 교류를 지양하고 충남에 보다 실익이 되는 경제통상, 문화·관광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저개발국 지원(ODA)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교류를 통해 충남의 문화를 아시아에 알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함
 - 충남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 청소년의 교환연수, 체육교류, 예술공연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관광설명회, 유학생 유치, 해외 취업, 해외 향우회 관리 등 충남의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류를 확대해야 함
- 또한 충남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교류지자체와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교류지역에는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충남 중소수출기업에게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기능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저개발국 지원(ODA사업)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 다문화가정 지원(한글교육, 한국문화 이해, 통·번역, 다문화가정 주부·청소년 지원 등)
 - 외국근로자 지원(취업, 숙소, 여가생활 등)
 - 결혼 이민자 여성 친정 보내주기
 - 아시아 농업인 초청 교육

3) 교류피해 최소화

- 충남 중소기업은 ASEAN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40.3%로 가장 많았고, 미국(34.0%), EU(17.3%), 싱가포르(9.7%) 순이었음

<표 6> 충남 중소기업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현황

(단위: %)

국가	수출만 함	수입만 함	수출·수입 다함	교역 안함
칠레	6.7	0.7	0.0	92.7
싱가포르	9.7	2.0	0.3	88.0
EFTA ¹⁾	4.3	1.0	0.7	94.0
ASEAN ²⁾	40.3	2.7	4.3	52.7
인도	12.3	1.7	0.7	85.3
EU	17.3	6.0	5.7	71.0
페루	4.7	0.3	0.0	95.0
미국	34.0	5.3	7.0	53.7

자료: 2013년 충남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 충남 중소기업은 FTA 체결국 중 ASEAN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

<표 7> 충남 중소기업의 FTA 체결 예정국과의 교역현황

(단위: %)

국가	수출만 함	수입만 함	수출/수입 다함	교역 안함
터키	6.7	0.0	0.7	92.7
콜롬비아	5.0	0.3	0.0	94.7
캐나다	7.3	0.7	0.3	91.7
인도네시아	12.3	1.0	0.7	86.0
중국	44.3	11.0	9.7	35.0
베트남	22.7	1.3	2.0	74.0
중·일	43.7	8.3	27.3	20.7
RCEP	56.0	8.0	16.3	19.7

자료: 2013년 충남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 1)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는 1960년 1월 4일 창설된 기구로 서유럽 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규모는 작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협력체
-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했고 최근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해 모두 10개국으로 구성

- 충남 중소기업의 경우 RCEP³⁾와의 교역이 80.3%로 가장 많았고, 중·일(79.3%), 중국(65.0%), 베트남(26.0%) 순이었음
- FTA 체결 예정국 중 RCEP와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며, 중국, 일본, 베트남과의 교역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은 교역기업이 많은 RCEP, 중국, 일본, 베트남 시장정보를 파악하여, 충남 중소기업이 향후 FTA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따라서 ASEAN FTA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중 FTA, 한·중·일 FTA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

충남의 아시아외교 전략 ◀

1) 교류국가 및 교류지자체 재정립

<표 8 >한국의 대중국 성별 수출액

(단위: 백만불)

순위	성명	금액
1	광둥성	20,676
2	강소성	16,365
3	산둥성	13,879
4	상해	6,520
5	절강성	5,858
6	요녕성	5,708
7	천진	4,669
8	하북성	2,938
9	북건성	2,680
10	북경	1,048
11	강서성	787
12	하남성	776
13	호남성	657
14	산서성	645
15	흑룡강성	561
16	안휘성	536
17	사천성	531
18	호북성	510
19	길림성	421
20	섬서성	409
21	기타 성	1473
총계		87,647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제교류가 충남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교류국가를 선정해야함

- 충남 중소기업의 아시아 지역 주요수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중국, 일본, 베트남하고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과의 교류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며, 지자체 및 민간의 교류활성화가 지역의 이미지개선과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 아울러 중국은 거대 경제권이자 충남 제1의 수출국으로 교류 지자체의 선정에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류 지자체의 재편도 고민해야 함
 - 특히 광둥성, 강소성, 산둥성, 상해 등 우리나라의 수출 10대 성 위주의 교류로 재편이 필요
- 일본 또한 충남의 전통적인 주요 수출국으로 교류 지자체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

2) 아시아지역에 적합한 교류분야 발굴

- 현재 주요인사 방문에 치중되어 있는 교류의 내용 변화가 필요
 - 기존의 기관장이나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중심의 자매결연 활동에서 탈피해야 함
 - 특히 지자체 주도보다는 주민,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향후 교류형태는 충남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관광확대와 충남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교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경제통상 분야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여 충남 중소기업의 수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함

- 따라서 주요인사 방문이나 행정시책 교류의 비율을 줄이고, 경제통상, 문화·관광의 교류비율을 높여 가야함
- 충남중소수출기업의 수출증대와 아시아 관광객 및 유학생들을 충남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가 필요
- 해외 및 타지자체의 교류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충남도의 이미지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 교류우수시책 발굴은 교류형태를 유형화하고 영역별(문화, 관광, 경제, ODA 등)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영역별로 민간교류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교류 지자체별 중점교류 과제를 <표 9>와 같이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표 9> 교류 지자체별 중점교류 표(안)

	문화	관광	경제·통상	ODA	기타
교류지자체1	○	△	◎	△	X
교류지자체2	△	○	○	◎	X
교류지자체3	○	◎	◎	△	△
교류지자체4	○	X	○	◎	X
교류지자체5	X	X	◎	○	△

주) ◎: 중점교류 영역 ○: 일반교류 영역 △: 고려교류 영역 X: 교류불필요 영역

3) 아시아수출기업 모니터링

- 아세아 수출기업의 정확한 needs를 분석하여 지원해야 함

<표 10> 충남의 수출지원사업 중요도

(단위: 5점 척도 평균)

충남의 수출지원사업		중요도
충남도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3.93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위	4.16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4.17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4.06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배양	4.00
충남 FTA활용 지원센터	FTA 콜센터 운영	3.89
	FTA 원산지 관리자 양성교육	4.05
	FTA활용 실무지식 교육	4.17
	FTA 시장설명회	4.19
	FTA 컨설팅 지원	4.18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4.22
	FTA 전문인력 지원알선	4.07

자료: 2013년 충남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 충남 중소수출입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해외마케팅, 시장설명회 등 바이어의 발굴이었으며, 다음으로는 FTA 컨설팅으로, 향후 거래선 확대와 초보 수출기업의 수출방법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사업재편이 필요
- 수출이 전무하여도, 수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수출초보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초보기업만을 위한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4) 동남아시아 지역 무역사무소 개소

- 충남은 현재 수출 1위국인 중국과 미국에 무역관을 설치하여 해외사무소를 통한 다양한 수출지원을 제공
- 그러나 홍콩, 대만도 주요한 수출거점지역으로 중화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 지원을 통해 수출확대를 도모해야 하며, 동남아시아의 해외사무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5) ASEAN FTA 활용극대화 및 한·중 FTA 선제적 대응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충남은 ASEAN과 교역하는 기업들이 많아 한·ASEAN FTA 활용지원을 강화해야 함

<표 11> 충남 중소기업의 FTA 체결국별 피해 및 혜택 여부

(단위: %)

국가	피해	영향 없음	이득	매우 이득
칠레	0.0	45.5	45.5	9.1
싱가포르	0.0	80.6	19.4	0.0
EFTA	0.0	55.6	38.9	5.6
ASEAN	2.1	59.2	36.6	2.1
인도	0.0	70.5	29.6	0.0
EU	0.0	49.4	44.8	5.8
페루	0.0	13.3	80.0	6.7
미국	2.2	59.7	35.3	2.9
전체	2.0	62.0	35.0	1.0

자료: 2013년 충남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 충남은 주요협정 지역인 ASEAN과 교역하는 기업이 많은데 비해 이득을 본 기업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책이 필요

<표 12> 충남 중소기업의 FTA 체결 예정국별 피해 및 혜택 여부

(단위: %)

국가	매우피해	피해	영향 없음	이득	매우 이득
터키	0.0	0.0	45.5	54.6	0.0
콜롬비아	0.0	0.0	43.8	56.3	0.0
캐나다	0.0	0.0	40.0	52.0	8.0
인도네시아	0.0	0.0	21.4	66.7	11.9
중국	1.5	5.6	45.1	41.5	6.2
베트남	0.0	0.0	47.4	50.0	2.6
중·일	0.0	4.6	59.7	33.6	2.1
RECP	0.0	2.5	56.9	39.4	1.2

자료: 2013년 충남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 또한 충남 중소기업은 국가가 현재 추진 중인 모든 FTA에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중과 한·중·일과의 FTA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존재
- 충남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에 대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7.7%로 상당히 낮고 피해를 예상하는 기업도 7.1%로 나타나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의 FTA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 충남은 한·중 FTA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고, 특히 농림어업 분야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표 13> 충남 중소기업의 FTA 활용실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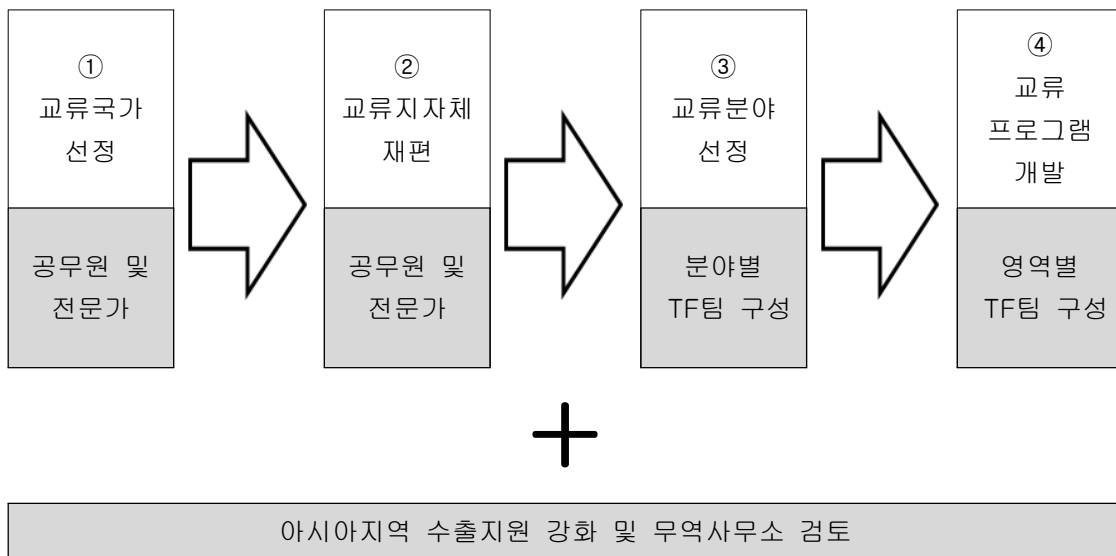
구분	활용하고 있다	활용하지 않는다
한·칠레	72.7	27.3
한·싱가포르	63.9	36.1
한·EFTA	66.7	33.3
한·ASEAN	60.6	39.4
한·인도	68.2	31.8
한·EU	77.0	23.0
한·페루	100.0	0
한·미	66.2	33.8

자료: 2013년 충남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 한·ASEAN과 교역이 있는 충남의 중소기업의 60.6%만이 한·ASEAN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FTA 활용기업의 비율은 페루→EU→칠레→인도→EFTA→미국→싱가포르→ASEAN 순으로 한·ASEAN FTA의 활용도를 더 높여가야 할 것임
- 특히 ASEAN은 교역하는 충남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아 이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필요함

전략 수립을 위한 로드맵 ◀

<표 14> 아시아 외교전략 로드맵



- 우선적으로 충남도 지역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교류국가를 선정해야 함
- 현재 교류중인 국가는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4개국이며, 이를 제외한 교류국가를 선정할지를 결정해야 함
- 교류국가의 선정은 국제협력 및 무역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충남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이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임
- 교류국가선정과 더불어 선정된 국가의 교류지자체도 선정해야 하며, 아울러 기존 교류지자체의 재편도 같이 논의해야 할 것임

- 충남도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충남도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자체를 찾고 지자체별로 중점 교류분야를 선정해야 함
 - 중점교류분야의 선정은 교류국가 및 지자체의 환경 및 특성을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그리고 교류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류프로그램을 발굴하여야 할 것임
 - 타지자체의 우수교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충남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함
- 충남의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논의해야 함
- 아시아지역으로 수출하는 충남중소수출기업의 니즈(needs)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지원해야 함
 -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은 미주나 유럽의 특성과는 다른 양상을 띌 수 있으며, 무역환경, 비관세장벽 등 중소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올바르게 분석하여 지원해야 함
 -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특히 한·ASEAN FTA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FTA 활용컨설팅을 강화하고, 아시아무역환경에 대한 정보수준을 높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교류협력 및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역사무소의 개소여부도 결정해야 할 것임
 - 기존 무역사무소의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충남 중소수출기업이 원하는 지역으로 1개소정도 개설하는 것도 필요

◆ 부 록: 일본의 외교전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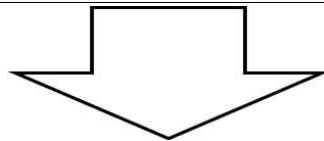
● 기후 현 국제교류전략의 방향성 <기본 방향성>

	제목	정책	활동내용
분야별	현민(縣民) 주도의 국제교류 지원 - 현민을 위한 세계각국·지역과의 다양한 우호교류	현내에 해외지역들과 지자체간 교류 및 민간 단체를 통한 교류 등 풀뿌리 차원의 국제교류가 존재 마을만들기 활동의 일환으로 해외와의 교류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음 우리 현에서는 민간주체로 실행중인 국제교류를 전제로 이들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형태의 지원을 실행	①기후현 헝가리 우호협회, 모로코-모나코, 이집트, 페루, 춘천시 우호협회와 교류 및 발족 ②한국 원주시와 ‘한지(韓紙)와 화지(和紙)’ 우호교류협정체결 ③기후현 美濃시, 대만 美濃구 우호교류협정 체결 ⑨시라가와村的 합장건축과 한국 안동시 하회마을이 ‘자매 세계유산집락’ 체결 ⑩동아시아의 청소년과 교류 -외무성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 일환 등
	기업 국제전개의 back-up - 산업·농림업 진흥을 위한 해외와의 교류	농산물과 지역산업 수출 촉진을 위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부유층, 중간층이 급증 중인 중국과 ASEAN 지역을 타겟으로, 판로 개척 등의 활동 추진	①지역산품 등의 해외시장 전개 강화, 촉진 ②기후현 산업경제진흥센터를 통한 현내 기업의 해외시장 전개지원 ③JETRO기후 무역정부센터 ④Greater NAGOYA Initiative 활동을 통한 해외기업유치 ⑤현립 직업능력개발 전문대와 중국 직업 학교와의 교류 ⑥홍콩, 중국의 농축산물 판로개척 ⑦ASEAN지역의 농축산물 판로개척 ⑧미네랄워터 해외시장개척 ⑨현산 목재제품의 해외시장개척 ⑩국제회의 등을 활용한 현내산업 PR ⑪대형보험회사와 연계한 현내기업 해외 사업 지원 등
	해외 고객유치 전략의 적극적 전개 - 광역연계를 활용한 중점시장에서의 유치	츠후圏 9현2시로 구성되는 츠후 광역관광추진 협회 등 조직과 지자체, 민간사업과 연계해 국가가 진행중인 VISIT JAPAN 사업과 연계	①해외 관광캠페인 실시 ②해외 여행·매스컴 관계자 초청사업 ③국제회의, 국제적 스포츠, 문화이벤트 유치, 개최 등

	국제공헌적 국제협력사 업의 적극적 전개	국제협력기구(JICA)와 외무성과 연계하여, 지방행정 시스템의 지혜가 필요한 해외지역 담당 자를 초빙·연수 등을 실시	①부탄에 대한 임업 지원 ②중국 강서성(자매도시)에 고령자케어기술 지원 ③중국 강서성에 농업 임업 환경기술 지원 ④외무성 및 JICA의 지방연수 프로그램 협력 ⑤교원의 해외봉사활동 현직파견 촉진 등
	외국국적 현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 공생사회 실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의 환경 하, '우리지역에서 살아 가는 생활자'로 인식	①현내 다언어정보의 집약 및 HP 제공 ②외국인 행정상담원 설치 ③일본어교실 개최지원 ④외국인 간호사후보, 복지사 후보에 대한 지원(EPA협정) ⑤공립학교에 외국인 아동학생 지원교원 배치 ⑥진학 가이드스 개최 ⑦외국인 고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등
	국제화시대 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 교육·문화진 흥을 위한 해외와의 교류	현내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지역애 육성	①아시아 도자기 델타 프로젝트 ②청소년 해외파견사업을 통한 국제적 시 야 양성 등
	국제교류 전략을 지탱하는 기반정비 - 세계와의 접근조건 향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해외거점 배치	현의 해외거점인 해외 주재원은 적극적으로 인맥을 개척함과 동시에 매스컴 등에 나오지 않는 정보수집의 의무가 있음 또한 현의 국제화정책 추진을 위해 (재)기후 현 국제교류센터 기능 재고	①추부 국제공항 활용 ②해외거점(해외주재원사무소) 설치 ③직원 인재육성 ④국제교류센터 기능재고 등
국가 · 지역 별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사람, 경제교류, 문화 교류등 관계가 깊음 우호교류, 산업·농림업 진흥, 교육·문화 진흥 등 분야의 교류 지속	①현민의 풀뿌리 교류 지원 ②기업교류(산업) - Greater NAGOYA Initiative 연계 ③현내 기업의 해외사업전개 지원 ④관광객유치(산업) ⑤현내 농축산물, 임산물 수출촉진(농림 업) ⑦도자기엑스포(한국 경기도), 영국 왕립 장미협회, 세계 장미회 연합 우호교류, 만화 교류 등

● 후쿠오카市 국제전략(案) 콘텐츠 <국제교류 작성 스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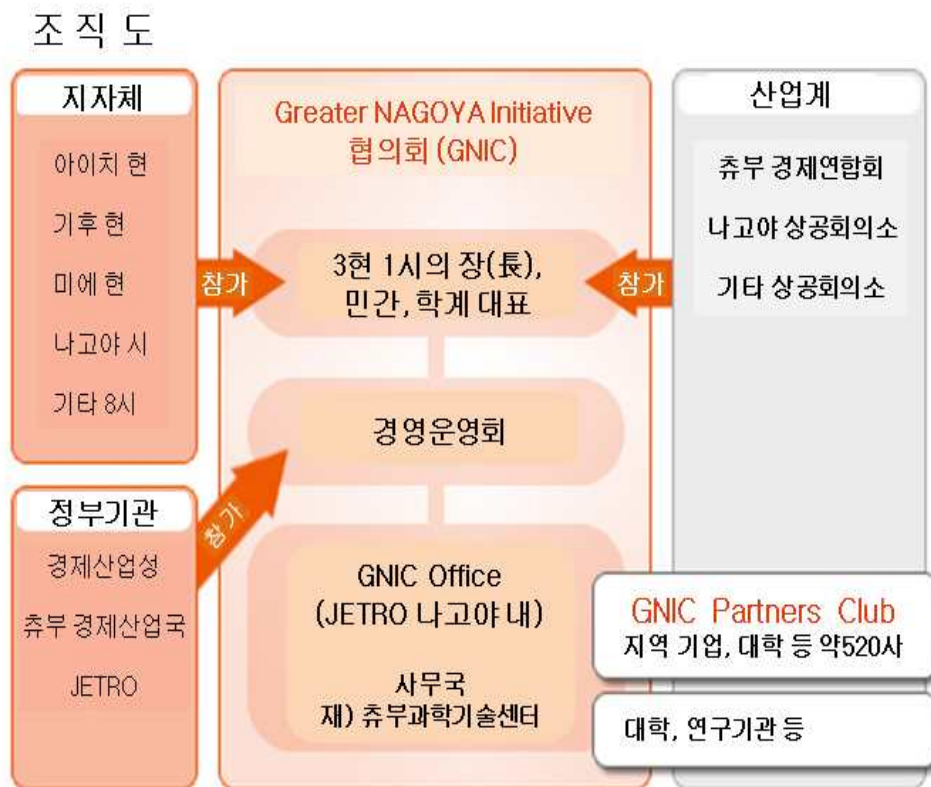
	요소항목	후쿠오카 도시권 [국제전략 201X]에 요구되는 요소
비 전 · 목 표 설 정	미래상(像)의 확인	미래의 추계인구, 노동력 인구, 학생수 예측, 외국인 거주자수 예측 등, 인구에 관한 추계데이터를 정비하여, 그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상을 인구의 양과 질로 설정
	지역간 경쟁의 관점	경쟁격화를 가시화하기 위해 세계 및 아시아지역의 도시데이터를 정비, 분야와 지역에서 세계의 상황을 파악
	글로벌 포지션 확인	①글로벌 레벨에서는 ‘국제지역 벤치마킹 협의회’에 참가하는 도시 및 ‘기타 OECD가맹국의 유력도시’를 벤치마킹 ②초광역경제권 레벨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밋’에 참가한 도시를 벤치마킹 ③광역경제권 레벨에서는 ‘환황해권’에 위치한 유력도시를 벤치마킹
책 정 및 실 시 과 정	메트로폴리스 지역에서의 대응	후쿠오카도시권, 또는 후쿠오카-北큐슈 광역연계지역, 후쿠오카 현 전역에서 대응을 추진
	이해관계자(Stake holders) 포섭	도시권의 자치체, 지역의 재계, 대학네트워크, 대학 이외의 고등교육기관, 산학연계기관, 국제기관(UN해비타트), NPO 및 지역 매니지먼트조직과 협동하여 책정,추진
	국제적 도시·지역 네트워크 형성	‘국제지역 벤치마킹 협의회’‘아시아태평양 도시 서밋’‘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등, 지역주체형 기존참가네트워크에 더해, UN 및 OECD등 국제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단기 프로젝트 베이스의 컨소시엄에 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
	조사·학습·기획· 전개의 사이클	정보수집·분석·편집·가공·발신할 ‘정보센터기능’을 충실히 함 그러기 위해, 행정의 통계·조사·분석·기획·싱크탱크·정보발신 부문을 통합, 혹은 강한 연계를 추진하여, 사이클 운영을 위한 정보 코디네이트 체제를 정비
	평가·쇄신을 동반한 프로젝트	목표성정을 과거의 연장선에서 찾지 않도록 함. 평가는 벤치마킹 할 해외도시지표와의 비교를 기본으로, 상대적 판단을 하도록 함 또한 곧 쇄신가능한 프로젝트 베이스의 체제를 정비, 프로 전 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등용하여 운영을 맡김



활 동 지 침 (예)	도시모델= 도시브랜드 제안	후쿠오카 지역으로서의 자세, 성장 이미지를 밝혀, ‘후쿠오카의 높은 삶의 질’이 실현될 수 있는 ‘성장산업과 연동한 도시모델’을 제시 -ex. ‘평생학습 자세’‘Knowledge Region으로 성장’ 이미지. 또한 ‘생활의 질에 밀착한 고등교육산업이 집적한 Learning city’ 등의 도시모델
-------------------------	----------------------	---

다문화·혁신과 비즈니스·협력의 거점	<p>산학관 연계를 통해 ‘경쟁력 전략’을 책정, 단기적인 우선 프로젝트(4개 정도)를 결정, 협동하여 추진.</p> <p>아시아정책의 자산활용을 하나의 축으로 함.</p> <p>-ex. ①지식 ②물류 ③tourism ④도심의 상업서비스업 등</p> <p>①지식에 관련해, 아시아 생활문화 Learning City Image를 구현 화할 Graduate School of Asia Cultural Life ‘아시아 문화대학 원(가칭) 설립’을 통해 거점정비 검토</p>
국제 마케팅 활동	<p>관민협동을 통한 마케팅 조직을 설립. 또한 市の 내부에 관민 협동형 커뮤니케이션 부서 설치</p> <p>경쟁력전략에 따라 분야별 마케팅전략을 책정, 실시</p>
마케팅 톨로써 활용	기존사업과 네트워크를 활용. 특히 아시아정책의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연결하여 인재조직 리스트를 활용
횡단적 추진체와 인재육성	<p>국제전략을 책정·추진할 전문부서 (가칭)국제전략본부 설치</p> <p>관민협동형 커뮤니케이션 부국을 설치하여 시민, 이해관계자에게도 열린 인재교육을 실시. 특히, 다언어인재 육성을 계획적으로 실시</p>

● Greater NAGOYA Initiative(GNI) 협의회 <산업면 교류의 중심축 예>



- Greater NAGOYA는 지리적으로 일본의 중앙에 위치한 나고야를 중심으로 반경 100km로 펼쳐진 지역을 지칭
- 동 권역은 일본 최강의 제조업 집적지(토요타, 샤프 등)으로, 일본 제조업의 중심부임
- GNI는 권역내 산업경제를 통해 전세계로부터 우수한 기업, 기술, 인재, 정보를 불러들일 수 있도록 권역내의 현, 시,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이 일체적으로 국제적 산업교류를 촉진하는 활동
- 권역내 사업전개 및 확대에 관심을 가진 외국기업에 대해 원스톱 창구 기능을 보유하여, 당 지역에 관한 정보, 조사, 홍보선전, 초빙, 면담 등의 어레인지, 진출지원 등 서비스 제공